

제목: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12절

바울은 자신이 목숨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예배하고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까?

1. 부르심을 알라고 합니다. (9절)
2.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12절)
3. 하나님의 일을 알라고 합니다. (21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헌/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튀르키예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이상훈 선교사	튀르키예 현지 사역인 돌봄 사역 (교회)
길요한/남소리 선교사	러시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아프간 난민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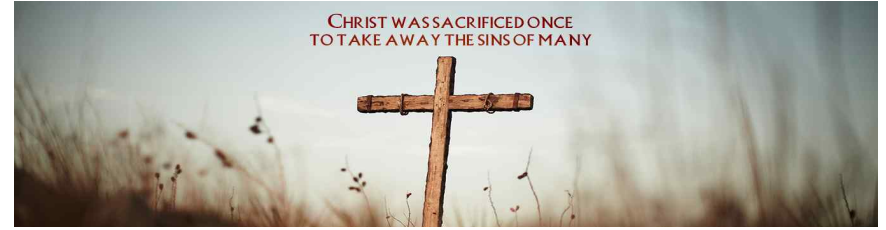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디모데후서 1장 9-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2 Timothy 1: 9-12 신약 343 페이지 Presider
- 말씀 "주의 일을 하는 이유는"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시간들)

오랜만에 둘째 딸 부부를 만나기 위하여 뉴저지로 갔다가 왔다. 짧은 시간이라서 많이 피곤했지만 주일을 지나야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로 갈 것인가? 가 숙제로 남았다. 우리교회가 돕고 있는 2세권 교회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예배 후에 방문하기로 하고 5년 전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타버나클 (Brooklyn Tabernacle)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다. 이전에 3부로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2부 예배를 한다. 9시와 12시였다. 9시 예배를 참석하기로 했다. 그 후에 그 2세권 교회를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전에 1시간 4분 정도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9시에 시작해서 2시간 20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역속 시간이 전부 늦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배가 너무나 은혜로웠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번에 7-8천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예배가 더욱 풍성해 졌다. 더 많은 찬양을 했고 설교 말씀의 제목도 없다. 물론 주보도 없다. 말씀이 있을 후에 또 다시 찬양이 이어진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사님이 말씀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같이 매우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신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유서에서 기름을 늘 넣어야 하듯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던지 눈물을 한판 쏟고 또 다시 도전을 받으며 교회를 나왔다. 그 교회를 나오면서 내 마음에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 제 평생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는데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라는 기도였다. 정말로 늘 마음에 소망과 소원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일어났고 경험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 왜일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날 그 마음을 가지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 그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늘 앞드려 예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감격이 내가 지난 주일에 방문한 교회보다 못하겠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 소망을 평생 주신 이유는 결국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기대가 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최선을 다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임무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결론이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론을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고민하지도 내가 더 앞서가지도 말자. 하나님 보다 먼저 앞서 간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시라고 찬양은 했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교회 사역들 또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결론을 보기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을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이다. 나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때문이다. 자꾸 목사가 앞서니 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오히려 퇴색되어 갔던 것을 알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처음은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 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김은경 선교사님의 건강 (폐렴)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튀르키예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이상훈 선교사:	원만한 튀르키예 사역을 위하여
길요한 선교사:	새로운 그림을 그려갈 선교지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9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9월 행사

목자 훈련	9월 17일(주) 친교 후	예배당
목장 모임	9월 24일 주중	각 목장에서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